

# 광주시 국내 최대 규모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 열린다

### 30일~9월1일 DJ센터...사물·환경 등 5개분야 6대 혁신기술 선보여 140개 기업 240개 부스 운영...개발자 경진대회·체험 프로그램도 풍성

광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30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인공지능 전시회인 'AI TECH+ 2023'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세상(A World with AI) 위드 AI'다. 사물(Things)과 환경(Environment), 융복합(Convergence), 사람(Human), 데이터(Data) 등 5개 분야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6대 혁신기술(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을 다룬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관광공사-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하며,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지역 주요 대학이 참여한다.

30일 전시회 공동 개막식을 시작으로 1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240여개의 전시 부스에서는 5개 분야의 기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기업 간 사업 연계,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회의(AI+X Conference), 인공지능 기술교류 행사, 광주-전남 IT 종사자협의회 주관 개발자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전시 참여 기업을 위한 행사로 코트라(KOTRA)

주관 '해외투자유치 상담회'가 30일부터 이틀 간 열리며, 기업 간 연계를 도와주는 '비즈니스 연결(Bizconnecting)', 영국 글로벌기업과 함께하는 '한-영 글로벌 비즈니스 온라인 상담회' 등도 마련된다.

인공지능 산업 최신 동향을 선보일 학술대회 'AI+X 콘퍼런스'는 행사 개막일부터 전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등 해외 첨단기술농업 강연과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강연 등이 진행된다. 또 NHN Cloud, 테크 프론티어 등의 기업이 'AI+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31일에는 'AI+지능형 농기계'라는 주제로 ㈜GINT, 국립농업과학원, 목포대, 경성대, 드림엔터테인먼트, 브레인기어, 그리다에너지 등이 강연을 이어간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광주-전남 IT 종사자협의회 주관의 '제2회 광주-전남 개발자 경진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시장 내 참가기업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인공지능 성능을 평가하는 상담프로그램, 피부 고민·궁금증에 대해 답해주는 AI 피부 상담, 상담자의 표정을 분석해 즉석에서 노래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노래 분석 서비스, 시실원에 VR 체험관 등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다. 특정 부스를 체험하고 도장을 받으면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스텝프루어'도 진행된다.

AI TECH+와 동시에 개최되는 첨단기술농업 전문 전시회 그린 & 애그리테크 아시아('Green & Agritech Asia')에서는 최신 농업축산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AI 월드 콘그레스인

광주 2023('AI World Congress in Gwangju 2023')에는 미국 존 디어(John Deere)사의 무클 바르시니 부사장과 영국 애그리테크(Agri-TechE)사의 벨린다 클라크 이사 등이 '1차 농업혁명에서 인공지능까지(1st Agricultural revolution to AI)'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등록 등은 AI TEC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첨단기술농업 전문전시회인 'Green & Agritech Asia'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돼 국내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청 '경술국치일' 조기 개막... 경술국치일인 2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조기가 걸려있다. <북구청 제공>

## '일본산 수산물 국산 둔갑' 특별점검

### 전남도, 100일간 유통업체 374개소 대상 원산지표시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100일간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에도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193개소를 특별 점검한 바 있다.

각 시·군, 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해경, 명예감시원으로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한 전남도는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

산물 유통 업체 50개소, 소매 업체 324개소를 대상으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부산서 남해안권 발전 전략 논의

전남도는 29일 부산에서 열린 '남해안 종합발전 추진전략 수립 지역협력회의'에 참석, 남해안권 종합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연구'의 첫 걸음으로, 국토부-남해안권(전남·경남·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지역발전모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휴양벨트 조성, 부산-목포 2시간대 통합인프라 건설 등을 세부 목표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관광·산업 등 기능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필요성 및 동서 통합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새로운 국토 성장축 구축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중점과제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해안권의 종합·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부처가 컨트롤타워로 공동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선도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에 김정완 부이사관

전남도는 개방형직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 김정완 전남인재개발위원장(지방부이사관)을 30일자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신임 투자유치본부장은 행정고시(49회)로

공직에 입문, 전남도 기획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장흥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전남도는 전남인재개발원장 자리를 메우기 위한 승진·정보 인사를 다음 주 단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인생 2막 준비 장년세대 지원 사업 확대"

### 강기정 시장 '월요 대화' 인생 재설계 경험담 등 공유

광주시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장년들의 수다'를 들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동구 학동에서 있는 빛고를 50+센터에서 32번째 '월요 대화' 행사를 열었다.

"은퇴 후 50년, 무엇을 더하고 싶으세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은퇴 전 명함을 버리고 인생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겪은 진솔한 경험담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관계망 재설정, 생애 재설계를 위한 교육·상담, 사업 지속성 확보 등과 함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순씨는 "장년층은 산업 일꾼이자 민주화를 이끈 세대지만, 정작 자신은 취미도 없고 건강도 돌보지 못했다"며 "50+센터와 같은 플랫폼을 확대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희송씨는 "부모를 봉양하지만, 자녀에게는

봉양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장년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며 "장년층의 정신적 풍요를 위해 자기 경력을 분석해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학습과 일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50+센터 개소가 다소 늦었지만, 장년들에게 인생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즐거이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50+ 사업을 더욱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